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6월 6일 국회직 8급-가책형

2020. 06. 0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 밑줄 친 부분의 표준 발음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래도 일사병[일사뺡]에 쓰러진 대원이 없었다.
- ② 울여름에는 남량[남냥] 드라마가 줄을 잇고 있다.
- ③ 그는 시조 한 수를 처량하게 읊고[읍꼬] 길을 떠났다.
- ④ 그들은 불법적[불뽕쩍] 방법으로 돈을 엄청나게 벌었다.
- ⑤ 아직 저학년의 글이라 띄어쓰기[띠여쓰기]가 미흡하다.

2. 문장 부호의 사용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1919년 3월 1일'은 '1919. 3. 1.'로도 쓸 수 있다.
- ② 놀이공원 입장료는 4,000원/명이다.
- ③ 그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성공할지는.....
- ④ 저번 동창회의 불참자는 이○, 박○○ 등 4명이었다.
- ⑤ 나라들이 무역 장벽을 제거하여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협정이 자유 무역 협정(FTA)이다.

3. <보기>에서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보기>

- ㄱ. 앰플(ampoule)
- ㄴ. 리조토(risotto)
- ㄷ. 마오쩌둥(Mao Zedong)
- ㄹ. 포퓰리즘(populisme)
- ㅁ. 캐시밀론(Cashmilon)

-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⑤ 5개

4. 밑줄 친 ㉠~㉤ 중 한자어의 한글 표기로 옳지 않은 것은?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어떤 실리적 목적을 위하여 ㉠狂奔하는 시대엔 개인의 교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 저지되지 않을 수 없다. 가령 일례를 든다면 産業革命時代의 구라파, 더욱이 19세기 후반의 英國社會 같은 것이다. 社會全體가 眞理를 사랑치 아니하고 精神的 價値를 돌보지 않고 다만 물질적 이득만을 위하여 ㉡汲汲하던 당시에 있어 교양은 흠에 파묻히고 말았다. 아놀드의 유명한 『敎養論』이 씌어진 것은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이다. 學理보다는 관습과 先例에 의하여 처리하려 하고 理想보다는 편의주의적 임기응변에 의하여 처세하려 하고, 진리와 美보다는 세속적 성공과 物質的 利得을 취하려는 英國人의 특성을 그는 '필리스티니즘'이라 하여 그에 대립되는 ㉢淸澄하고 ㉣宏闊하며 ㉤高邁한 희랍정신을 고쳐하였다.

- ① ㉠ : 광분 ② ㉡ : 급급
- ③ ㉢ : 청징 ④ ㉣ : 광활
- ⑤ ㉤ : 고매

5.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세 국어의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습-'은 현대 국어의 '하옵고' 등에 그 용법이 남아 있다.
- ② 중세 국어에서는 주격 조사로 주로 'ㅣ'를 사용하였는데, '너'에 주격 조사가 결합하면 '네'가 된다.
- ③ 중세 국어에서는 '네 겨집 그려 가던다'에서 보듯이 주어가 2인칭일 때에는 '-나다'를 의문형 종결 어미로 사용하였다.
- ④ 중세 국어에서는 주어가 1인칭 화자일 경우에는 '우리돌히 毒藥을 그르 머구니'와 같이 선어말 어미 '-오/우-'를 사용하였다.
- ⑤ 중세 국어에서 명사절을 만드는 방법은 '날로 부메'에서 보듯 현대 국어와 다르다.

6. <보기>에서 중의성을 유발하는 요인이 같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보기>

- ㄱ. 길이 있다.
- ㄴ. 영수가 보고 싶은 친구들이 많다.
- ㄷ.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딸을 더 사랑한다.
- ㄹ. 시내에서 가까운 곳에 우리 집이 있다.

- ① (ㄱ), (ㄴ, ㄷ, ㄹ)
- ② (ㄴ), (ㄱ, ㄷ, ㄹ)
- ③ (ㄱ, ㄴ), (ㄷ, ㄹ)
- ④ (ㄱ, ㄷ), (ㄴ, ㄹ)
- ⑤ (ㄱ, ㄹ), (ㄴ, ㄷ)

7. (가)~(라)를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도로 교통에서는 자명한 법칙인 것이 의학에서는 반드시 동일하지는 않지만 추론의 단초가 되었다.

(가) 의학은 이런 현상의 원인을 규명하려 애쓰면서 오랫동안 별로 가망 없는 곳들을 탐색했다.

(나) 흥미롭게도 몸속에서 벌어지는 몇몇 상황은 휴가철에 고속도로에서 일어나는 일에 빗댈 만하다. 뇌-당김에 장애가 생기면, 곧바로 뇌로 공급하는 포도당의 흐름이 정체된다.

(다) 에너지는 휴가철에 바다로 향하는 차량 행렬처럼 뇌로 향한다. 정체가 생긴다면, 그것은 뇌에서 일어나 몸으로 확산된다.

(라) 지방 세포, 근육 세포, 체장, 간 등을 살펴본 것이다. 그러나 정체의 원인은 항상 앞에 있다는 원리를 받아들인다면, 가능한 대답은 단 하나, 그 원인은 뇌에 있다는 것이다.

- ① (가)-(나)-(다)-(라) ② (가)-(다)-(나)-(라)
- ③ (나)-(가)-(라)-(다) ④ (나)-(다)-(라)-(가)
- ⑤ (다)-(나)-(라)-(가)

2020. 06. 0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8. 다음 글을 파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근대가 전근대의 틈이자 균열이라는 말은 단순히 메타포만은 아니다. 연암 박지원은 말 거간꾼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대 우정 논쟁을 해학적으로 그린 「마장전(馬駟傳)」의 끝부분에서 골계 선생(滑稽先生)이라는 페르소나로 출연하여 다음과 같은 우정론을 개진하고 있다.

저 성안후(成安侯)와 상산왕(常山王)은 그 사귀에 틈이 없었다. 그래서 한번 틈이 생기자 이 틈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러므로 사랑할 만한 것도 틈을 두지 않는 것이지만 두려워할 만한 것도 틈을 두지 않는 것이다. 아침은 틈으로 말미암아 딱 맞아떨어지고 모함도 틈으로 말미암아 이간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잘 사귀는 사람은 먼저 그 틈을 돌보며 다른 사람과 잘 사귀지 못하는 사람은 틈을 돌보지 못한다.

언뜻 아리송해 보이기 짝이 없는 은어 같은 말들로 중언부언되어 있는 「마장전(馬駟傳)」의 속내가 이 부분에서 폭로되고 있다. 즉, 우정은 전근대의 문법에서처럼 틈새 없는 인격의 결합이 아니라 인격 사이의 거리, 다시 말해 틈에 의해 구성되는 심리전의 양태로 화한 것이다.

- ① 전근대에 비해 근대의 ‘우정’은 서로 간의 경계가 없는 긴밀한 관계라기보다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속되는 평행선과 같은 것이다.
- ② 전근대의 ‘우정’은 메타포라기보다는 해학에 근거하여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 ③ 전근대 시기의 ‘우정’은 아침으로 말미암아 틈이 생기고 모함으로 말미암아 이간질된다.
- ④ 성안후(成安侯)와 상산왕(常山王)의 사귀는 근대적 사귀의 단초라 할 수 있다.
- ⑤ 연암 박지원의 관점에서는 틈이 없는 밀접한 관계의 우정이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갖게 되는 우정이나 다를 바가 없다.

9. 다음 글은 방송에서의 경어 사용에 대한 것이다. 각 문단의 앞에 올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하대어가 없는 방송언어의 특징을 알아야 한다. 어린이 방송에서 유념해야 할 일이다. 아이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대어를 쓰면 시청자를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 시청자가 왕이라는 생각, 시청자가 바로 국민이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야 한다. 국가원수일지라도 방송언어에서는 지나친 경칭이나 경어를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방송언어는 가장 민주적인 말이어야 한다.

(㉢) 문법에 소홀하면 상대방을 존경하는 의미를 가진 선어말 어미 ‘-시-’가 자신의 말에 들어가기도 한다. ‘내가 부르시면 대답하세요.’와 같은 경우이다.

(㉤) 나를 생각하기에 앞서 남을 생각하는 말이어야 한다. ‘공보처럼 파인 길, 절름발이 행정, 애꾸눈이 된 차랑’ 등은 불특정 다수에게, 아니면 주인공의 인격을 모독하여 피해를 입히는 결과가 된다.

(㉥) 억양도 그러하고, 화면에 비친 몸의 동작도 정중해야 한다. 지나치게 빠른 말투의 방송, 말끝이 터무니없이 올라간 설득조가 담긴 말투의 방송도 문제다. 신체언어(body language)라는 말도 있거니와 말을 사용하지 않는 커뮤니케이션(nonverbal communication)에도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 ① ㉠ : 방송언어는 누구든지 존중하는 경어라야 한다.
- ② ㉡ : 방송언어는 민주주의 이념에 맞는 경어라야 한다.
- ③ ㉢ : 방송언어는 문법에 맞는 경어라야 한다.
- ④ ㉤ : 방송언어는 타인의 처지를 고려하는 경어라야 한다.
- ⑤ ㉥ : 방송언어는 정중한 자세를 가진 경어라야 한다.

10. 밑줄 친 ㉠~㉥의 함축적 의미가 유사한 것으로 묶인 것은?

德으란 공빅에 받좁고 福으란 림빅에 받좁고
德이여 福이라 호놀 나수라 오소이다
아으 動動다리

正月스 나릿 므른 아으 어저 녹저 흥논딕
누릿 가온딕 나곤 몸하 흥올로 널서
아으 動動다리

二月스 보로매 아으 노피 현 ㉠燈스불 다호라
萬人 비취실 즈시샷다
아으 動動다리

三月 나며 開흔 아으 滿春 돌릿고지여
늑믹 브를 즈슬 디녀 나샷다
아으 動動다리

四月 아니 니저 아으 오실서 ㉡긔고리 새여
므슴다 錄事니문 넷 나를 닛고신더
아으 動動다리

五月 五日애 아으 수릿날 아춤 藥은
즈문힐 長存ㅎ살 藥이라 받좁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六月스 보로매 아으 별해 복론 ㉢빚 다호라
도라보실 니을 적곰 좇니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6월 6일 국회직 8급-가책형

2020. 06. 0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七月 ㅅ 보로매 아으 百種 排하야 두고
니을 훈 디 녀가져 願을 비습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八月 ㅅ 보로몬 아으 嘉俳나리마론
니을 외셔 녀곤 오늘낫 嘉俳샷다
아으 動動다리

九月 九日애 아으 藥이라 먹는
黃花고지 안해 드니 새셔 가만하애라
아으 動動다리

十月애 아으 저미연 @ㅅㅅ 다후라
것거 ㅅㅅ신 後에 디니실 훈 부니 업스샷다
아으 動動다리

十一月 ㅅ 봉당 자리에 아으 汗衫 두퍼 누워
슬홀스라운더 고우닐 스식옴 널셔
아으 動動다리

十二月 ㅅ 분디남ㅅ로 갓곤 아으 나을 盤잇 저 다후라
니의 알픽 드러 열이노니 @ㅅㅅ 가재다 므릅노이다
아으 動動다리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11. <보기>의 ㉠~㉤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보기>

- ㉠. 나는 봄꽃이 좋다.
㉡. 그 사람은 감발을 벗었다.
㉢. 그는 진짜 거짓말을 못한다.
㉣. 그 왕고집을 누가 당하겠어?
㉤. 나는 가슴을 두근두근하며 발표를 기다렸다.

- ① ㉠의 ‘봄꽃’과 ㉢의 ‘거짓말’은 단어 형성 방법이 같다.
② ㉡의 ‘감발’과 ‘독서’, ‘검붉다’는 단어 형성 방법이 같다.
③ ㉢의 ‘진짜’와 ‘코뚜레’, ‘집게’는 단어 형성 방법이 같다.
④ ㉣의 ‘왕고집’과 ‘범민족’, ‘최고참’은 단어 형성 방법이 같다.
⑤ ㉤의 ‘두근두근하며’와 ‘빛나다’, ‘잘되다’는 단어 형성 방법이 같다.

12. 다음 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597년 9월 16일 맑음

이른 아침 적을 살피고 온 정탐대가 ‘수없이 많은 적선이 명량으로부터 지금 우리가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고 알려 왔다.

나는 곧 여러 배에 명령하여 출전하였더니, 적선 130여 척이 우리 배를 에워쌌다. 여러 장수들은 중과부적이라 스스로 낙심하여 도망갈 꾀만 내고 있었다. 나는 노를 빨리 저어 적진으로 쫓아 나가며 지자포, 현자포 등 여러 대포를 마구 쏘아댔더니 탄환은 마치 폭풍우같이 쏟아졌다. 게다가 군관들이 배 위에 총총히 나가 서서 화살을 빗발처럼 쏘니 적들은 감히 달려들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다. 그러나 적에 의해 여러 겹으로 둘러싸인 군사들은 겁에 질려 있었다. 그래서 나는 부드럽게,

“적선이 아무리 많다 해도 우리 배를 바로 쳐부수지 못할 것이니 조금도 마음을 움직이지 말고 힘을 다해서 적을 싸라!” 하고, 다른 여러 장수들의 배를 돌아보니 우리 배들은 먼 바다에 몰려가 있었다.

나는 호각을 불어 중군에게 명령을 내리는 깃발을 세우게 하고 군대를 부르는 초요기를 세우게 했더니, 중군장 김응함의 배가 가까이 왔으며 거제 현령 안위의 배도 왔다. 나는 배 위에 서서 안위와 김응함에게,

“너희는 중군으로서 멀리 도망가고 위기에 빠진 대장을 구하지 않았으니 그 죄를 어떻게 할 셈이냐? 당장 처형할 것이지만 싸움이 급하니 우선 공을 세워라.” 하였다. 그래서 두 배가 적진을 향해 앞장서 나가자 적장이 탄 배가 다른 두 배에 명령하여 한꺼번에 안위의 배에 개미 떼처럼 붙어 서로 먼저 올라가려고 하니, 안위와 그 부하들이 죽을힘을 다해 몽둥이로, 창으로, 혹은 돌맹이로 치고 막다가 배 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진맥진하므로 나는 뱃머리를 돌려 바로 쫓아 들어가 마구 적을 향해 쏘았다. 적선 세 척이 거의 다 덮여지고 넘어졌을 때, 녹도 만호 송여종과 평산도 대장 정응두의 배가 뒤쫓아 와서 적을 쏘아 죽여 적은 한 놈도 남지 않았다.

- 이순신, 『난중일기』에서 -

- ① 적들은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싸움에 임하고 있다.
② 이순신 장군은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함께 가진 장수이다.
③ 해전(海戰)에서는 신호에 의해서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④ 이순신 장군 휘하의 장수들은 술선하여 싸움에 임하고 있다.
⑤ 이 해전(海戰)은 적선 130여 척을 모두 격침시킨 대첩이다.

13. 밑줄 친 관용 표현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녀는 바쁘다는 말이 입에 붙었다.
② 그는 입이 되어 무엇이든 잘 먹는다.
③ 저 아이가 저렇게 마른 것은 다 입이 발기 때문이지.
④ 그녀는 야무지게 생긴 얼굴 못지않게 입이 여물어 함께 일하기에 편하다.
⑤ 좋은 사람으로 비쳤던 김 씨가 사실 엄청난 사기꾼이었다는 말을 듣고 모두들 입이 켜었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6월 6일 국회직 8급-가책형

2020. 06. 0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14.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 일은 할만하다.
- ② 그들은 2 시간 동안 줄곧 걸었다.
- ③ 나에게만이라도 행운이 찾아오면 좋겠다.
- ④ 우리는 마을에서 불량배들을 쫓아내버렸다.
- ⑤ 유가의 문학 사상은 주로 철학적 문제나 사회와 관련지어 논의되었다.

15. 의미의 중복이 없이 자연스러운 문장은?

- ① 나는 오늘 저녁에 역전 앞에서 선이를 만나기로 했다.
- ②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시 재론할 필요가 없다.
- ③ 요즘 들어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이 우리를 난처하게 한다.
- ④ 민수는 단풍이 울긋불긋하게 물든 설악산으로 여행을 떠났다.
- ⑤ 언어의 의미 변화가 왜 일어나는가의 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

16. <보기>의 <표준어 규정>에 해당하는 사례로만 묶인 것은?

<보기>

제21항: 고유어 계열의 단어가 널리 쓰이고 그에 대응되는 한자어 계열의 단어가 용도를 잃게 된 것은, 고유어 계열의 단어만을 표준어로 삼는다.

- ① 푼돈, 밥소라, 사래발
- ② 벽지다, 움파, 흰말
- ③ 박달나무, 성냥, 두껍창
- ④ 목발, 솟을무늬, 구들장
- ⑤ 앞초, 가루약, 메찰떡

17. 밑줄 친 ㉠~㉤의 한자어 표기가 모두 옳은 것은?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공맹을 본받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병법이라도 익혀 대장인을 허리춤에 비스듬히 차고 ㉡동정서벌하여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 이름을 만대에 빛내는 것이 장부의 통쾌한 일이 아니겠는가. 나는 어찌하여 일신이 적막하고, 부형이 있는데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니 ㉢심장이 터질지라, 이 어찌 ㉣통탄할 일이 아니겠는가!

- | ㉠ | ㉡ | ㉢ | ㉣ |
|-------|------|----|----|
| ① 大將夫 | 東征西伐 | 心臟 | 通歎 |
| ② 大將夫 | 東征西罰 | 心臟 | 痛歎 |
| ③ 大丈夫 | 東征西罰 | 深藏 | 痛歎 |
| ④ 大丈夫 | 東征西伐 | 深藏 | 通歎 |
| ⑤ 大丈夫 | 東征西伐 | 心臟 | 痛歎 |

18. 밑줄 친 ㉠~㉤의 현대어가 옳은 것은?

나라히 破亡하니 외과 ㉠그롬썸 잇고 잣 앓 보미 플와 나모썸 ㉡기펏도다 時節을 感歎호니 고지 늣을롤 쓰리게코 여희여슈을 ㉢슬호니 새 막오물 놀래노다 烽火ㅣ 석 돌롤 니어시니 지빋 音書는 萬金이 ㉣스도다 썸 머리롤 글구니 쏘 더르니 다 ㉤빈허롤 이기디 몰홀 듯호도다

- 17C, 『두시언해 중간본』에서 -

- ① ㉠ : 그롬썸 - 갈래만
- ② ㉡ : 기펏도다 - 기뻐구나
- ③ ㉢ : 슬호니 - 슬퍼하니
- ④ ㉣ : 스도다 - 싸구나
- ⑤ ㉤ : 빈허롤 - 텅 빈 허를

19.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그들은 신에게 제물을 바쳐 부락의 안녕을 빌었다.
- ②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아이가 승용차에 받쳐 크게 다쳤다.
- ③ 아침에 먹은 것이 자꾸 받쳐서 아무래도 점심은 굶어야겠다.
- ④ 사공은 신부에게 빨리 뛰어내리라고 짜증 어린 성화를 바쳤다.
- ⑤ 고추가 워낙 값이 없어서 백 근을 시장 상인에게 받혀도 변변한 옷 한 벌 사기가 힘들다.

20. 글 전체의 맥락을 고려할 때,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후발주자들이 (㉠) 신기술 투자는 일종의 모험이다. 생소한 영역을 개척하는 일이다. 미래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생소한 영역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려면 모험하는 대상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 나는 게으름은 대부분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미리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다.”라면서 자신의 이해 부족을 후회한다. 인공 지능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가 더딘 도입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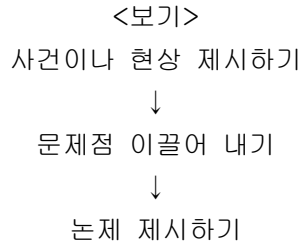
- ① 인공 지능을 생소하게 여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② 인공 지능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③ 인공 지능을 도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④ 인공 지능을 모험이라고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 ⑤ 인공 지능에 대해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2020. 06. 0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21. ‘사이버 윤리 규범의 필요성’을 논제로 하여 글의 서론을 <보기>와 같은 방법에 따라 썼을 때, 적절한 문장은?



- ① 최근 들어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윤리적 행동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 등이 그것이다.
- ② 사이버 윤리 규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으로 인해 비윤리적 행동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이버 윤리 규범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하는가?
- ③ 사이버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 대한 높은 관심은 일부 젊은 계층에 한정된 것이다. 이러한 사이버 공간에 대한 관심을 바람직한 현상으로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 ④ 최근 인터넷 사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은 현실 세계와 달리 행동이 자유롭고 규제가 적기 때문이다. 사이버 공간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상황의 개선이 필요하다.
- ⑤ 사이버 공간이 새로운 자유 공간으로 환영받고 있다. 그런데 사이버 공간에서 무제한의 자유로 인해 여러 비윤리적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를 적절히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22. 다음 글을 파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느낌은 어떻게 우리 마음을 유리한 쪽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일까? 느낌이 우리 마음속에서 그리고 마음에 대해 한 일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의 일부를 찾을 수 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느낌은 어떤 언어의 도움도 없이, 우리 몸의 생명 작용이 좋은 방향으로 향하는지 나쁜 방향으로 향하는지를 마음에 알려준다. 그렇게 함으로써 느낌은 자연스럽게 생명 작용이 우리의 안녕과 풍요에 이로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한다.

이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느낌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독특한 특성 때문이다. 느낌은 뇌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화학 분자와 신경 회로의 상호작용으로 뇌와 신체가 같이 만들어 내는 현상이다. 그동안 간과되었던 느낌의 이 독특한 특성은 평상시 무심히 진행되는 마음의 흐름에 제동을 걸고 방향을 바꾼다. 느낌의 근원은 삶과 죽음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외줄타기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느낌은 우리 마음속에서 고통스럽거나 찬란하고, 부드럽거나 강렬한 음을 내는 현악기의 줄과 같다. 느낌은 알아차리기 힘들 만큼 미묘하게 우리 마음을 휘젓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도 강렬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기도 한다. 때로는 가장 좋은 상태에서도 우리 마음의 평정심을 흔들어 놓고 고요함을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편안하고 행복한 상태에서 괴롭고 아픈 상태에 이르기까지, 고통과 즐거움에 대한 느낌은, 질문을 던지고 대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촉매제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동물의 마음과 구별되는 인간만이 가진 마음의 특성이다. 인간은 질문을 던지고 대상을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감으로써, 자신이 처한 곤경을 해결할 기발한 방법을 개발해 나갔고 만족과 풍요를 이루어 왔다. 인간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방법을 점차로 발전시켰고 상처와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학을 발명했다. 한편 인간은 타인에 의해 아픔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다. 타인에 공감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이 자신을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한 각성으로 고통스러워하기도 한다. 그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조건을 자각하면서 고통을 겪기도 한다. 이를 통해서 인간은 개인이나 집단의 자원을 확장하여 도덕 규칙과 정의의 원칙을 만들고 사회조직과 통치 체계, 예술적 창조물, 종교적 믿음을 만들어 냈다.

- ① 느낌이 마음에 무엇을 알릴 때 일반적으로 언어의 도움을 받는다.
- ② 느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성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 ③ 느낌은 뇌의 독자적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현상이다.
- ④ 고통과 즐거움에 대한 느낌은 문제 해결 과정에 관여한다.
- ⑤ 동물의 마음도 느낌을 통해 대상을 이해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23. 다음 시의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는 일손을 멈추고 잠시 무엇을 생각하게 된다
—살아있는 보람이란 이것뿐이라고—
하루살이의 ㉠광무여

하루살이는 지금 나의 일을 방해한다
—나는 확실히 하루살이에게 졌다고 생각한다—
하루살이의 유희여

너의 모습과 너의 몸짓은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우냐
소리없이 기고 소리없이 날으다가
되돌아오고 되돌아가는 무수한 하루살이
—그러나 나의 머리 위의 ㉡천장에서는 너의 소리가 들린다—
㉢하루살이의 반복이여

불 옆으로 모여드는 하루살이여
㉣벽을 사랑하는 하루살이여
감정을 잊어버린 시인에게로
모여드는 모여드는 하루살이여
—나의 시각을 쉬이게 하라—
하루살이의 ㉣황홀이여

- 김수영, 「하루살이」 -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6월 6일 국회직 8급-가책형

2020. 06. 0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 ① ㉠ : 화자를 성찰하게 하는 춤
- ② ㉡ : 화자가 추구하는 긍정적 공간
- ③ ㉢ : 화자가 처한 부정적 현실
- ④ ㉤ : 비애와 애환의 공간
- ⑤ ㉥ : 구체적인 화자의 내면

24. 밑줄 친 ㉠~㉥을 설명할 수 있는 예시로 옳은 것은?

언어는 통시적으로 꾸준히 변화하고, 음운, 어휘, 문법, 의미 등 언어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에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 중 의미 변화는 어떤 말의 중심 의미가 새로 생겨난 다른 의미와 함께 사용되다가 마침내 다른 의미로 바뀌는 현상이다. 단어가 의미 변화를 겪고 난 후의 결과를 보면 단어가 지시하는 범위, 곧 의미 영역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의 의미가 확대되는 경우와 ㉡ 축소되는 경우, 그리고 ㉢제3의 다른 의미로 바뀌는 경우를 볼 수 있다.

㉠	㉡	㉢
① 마누라	눔	식구
② 놀부	짐승	언니
③ 온	메	인정(人情)
④ 어리다	외도(外道)	손
⑤ 무릉도원	방송(放送)	말씀

25. 다음 글을 파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득과 부에 대한 불균등한 접근 기회는 국가의 형성보다 앞서 존재했고, 국가가 발전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통치 체제가 일단 구축되고 나자 결과적으로 기존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나아가 새로운 불평등도 생성되기에 이르렀다. 전근대 국가들은 상업 활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그리고 동시에 정치 권력 행사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자들을 위해 개인적 이득이 생겨날 새로운 출처를 가능케 함으로써 소수의 손안에 물질 자원이 축적 및 집중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창출했다. 결국 정치적·물질적 불평등은 하나의 변수가 증가하면 다른 변수에도 그에 상응하는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상향 나선형 상호 작용 효과라고 일컫는 것 안에서 나란히 진화했다.

현대 학자들은 국가라는 지위의 본질적 특징을 정확히 포착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정의를 제시해 왔다. 그 중 몇 가지 요소를 차용하면, 국가란 영토와 그곳의 인구 및 자원에 대한 지휘권을 주장하고, 구속력 있는 명령과 규칙을 공포하고, 이러한 명령과 규칙을 위협이나 물리적 폭력을 포함한 합법적인 강압 조치의 행사로 뒷받침함으로써 통치 기능을 수행하는 일련의 제도와 인력

을 갖춘 정치 조직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최초의 국가 출현을 설명하는 이론은 아주 많다. 내재적 추진력은 모두 어떤 면에서는 경제 발전과 그것의 사회적·인구학적 결과에 입각해 있다. 즉 유리한 위치를 점한 자들이 교역의 흐름을 통제함으로써 거둬들이는 이득, 지도자들에게 인구 밀도 증가 및 생산과 교환의 더욱 복잡한 관계에서 유발되는 문제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 생산 수단에 대한 접근 기회를 둘러싼 계층 갈등, 그리고 규모 확장과 위계 및 중앙 집권화한 지휘 체계를 선호하는 자원 부족을 둘러싼 무력 충돌이 생성하는 압력 등이 그것이다.

- ① 소득과 부에 대한 불균등은 국가 형성 전부터 존재하다가 국가가 성립한 후 없어졌다.
- ② 전근대 국가들이 상업 활동에 대해 내린 보호 조치는 특정 개인이 부를 쌓기 어렵게 하는 요소였다.
- ③ 정치적 불평등은 물질적 불평등과 함께 상향 나선형 상호 작용 효과를 보이며 발달했다.
- ④ 국가라는 지위의 본질적 특징을 정의할 때 영토보다는 조직이 우선하는 요소로 적용된다.
- ⑤ 인구수에 대한 철저한 강압적 통제는 최초의 국가의 출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6월 6일 국회직 8급-가책형

2020. 06. 0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정답 및 해설

1	2	3	4	5	6	7	8	9	10
①	⑤	④	④	①	⑤	③	①	②	④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⑤	②	②	④	④	①	⑤	③	②	③
21	22	23	24	25					
⑤	④	①	③	③					

01 ① 어문규정-표준발음법

① 한자어에서, ‘ㄹ’ 받침 뒤에 연결되는 ‘ㄷ, ㅌ,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따라서 ‘일사병’의 발음은 [일사뽕]이 아니라 [일싸뽕]이다.

• 일사병(日射病)[일싸뽕]: 강한 태양의 직사광선을 오래 받아 일어나는 병.

[오답 풀이]

② 납량[납량(비음화:교체)→납량(비음화:교체)]

• 납량(納涼)[납량]: 여름철에 더위를 피하여 서늘한 기운을 느낌

③ 읍고[읍고(자음군단순화:탈락)→읍고(음절의 끝소리규칙(교체)→읍고(된소리되기:교체)]

④ 불법적[불법적/불뻘적]

불법(不法)의 표준발음은 [불뻘]이며, [불뻘]의 발음도 허용한다. 그리고 받침 ‘ㄱ, ㄷ, ㅂ’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ㅌ, ㅈ’은 된소리로 발음한다. 따라서 [불뻘적/불뻘적] 모두 올바른 발음이다.

• 참고로, ‘불교’나 ‘부처가 말한 교법’을 뜻하는 ‘불법佛法’은 [불뻘]으로 발음한다.

• ‘법’의 발음 ‘합뻘[합뻘], 적뻘[적뻘]’과 같이 불파음 뒤에서 된소리가 되는 예를 제외하고, ‘위법[위뻘], 불법[불뻘]/헌법[헌뻘], 탈법[탈뻘]’ 등과 같이 모음이나 유성자음 뒤에서 예사소리로 발음되는지 된소리로 발음되는지는 따로 규칙을 세워서 설명하기 어려운 수의적인 현상이다.

⑤ 띄어쓰기[띄어쓰기(원칙)/띄어쓰기(허용)]

•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발음한다. 따라서 ‘띄-’는 [따-]로 발음한다.

• ‘ㅣ’로 끝나는 어간 뒤에 ‘어’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 반모음 ‘ㅣ[j]’가 첨가된 ‘ㅣ’ 모음 순행 동화로, ‘어’를 [ㄴ]로 발음하는 것은 것을 허용한다. 따라서 ‘띄어쓰기’의 발음은 [띄어쓰기(원칙)/띄어쓰기(허용)]이다.

02 ⑤ 어문규정-문장부호

⑤ 자유 무역 협정(FTA) → 자유 무역 협정[FTA], 에프티에이(FTA)

고유어나 한자어에 대응하는 외래어나 외국어 표기임을 나타낼 때 대괄호를 쓴다. 그리고 외래어 ‘에프티에이’의 원어로서 ‘FTA’를 아울러 보일 때는 소괄호를 쓴다.

ㄱ 자유무역협정[FTA]

ㄴ 에프티에이(FTA)

[오답 풀이]

①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때, 글자 대신 마침표로 연월일을 나타낼 수 있다.

② 기준 단위당 수량을 표시할 때 해당 수량과 기준 단위 사이에 빗금(/)를 쓴다.

③ 할 말을 줄였을 때 줄임표(……)를 쓴다. 이때 점은 가운데에 찍는 대신 아래쪽에 찍을 수도 있고, 여섯 점을 찍는 대신 세 점을 찍을 수도 있다.

ㄱ 성공할지는……

ㄴ 성공할지는……

ㄷ 성공할지는……

ㄹ 성공할지는……

점을 아래에 찍는 경우에도 마침표가 필요한 경우에는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마침표를 포함하면 아래에 일곱 점/네 점을 찍는 셈이다.

④ 저번 동창회의 불참자는 이○○, 박○○ 등 4명이었다.

비밀을 유지해야 하거나 밝힐 수 없는 사항을 나타낼 때 숨김표인 ‘○(동그라미표, 영표, 공표), ×(가위표,가세표)’를 쓴다.

ㄱ 이○○, 박○○

ㄴ 이××, 박××

03 ④ 어문규정-외래어 표기법

ㄱ, ㄷ, ㄹ, ㅁ의 외래어 표기는 모두 적절하다.

ㄱ. 앰폴(ampoule): 1회분의 주사액을 넣고 밀봉한 유리 용기. 앰폴(×), 앰포울(×), 암포울(×), 앰플(×)

ㄷ. 마오쩌둥(Mao Zedong[毛澤東]): 중국의 정치가

‘장제스, 마오쩌둥, 덩샤오핑, 베이징’과, 이들을 우리 한자음으로 읽은 이름인 ‘장개석, 모택동, 등소평, 북경’을 모두 쓸 수 있다.

ㄹ. 포퓰리즘([프랑스어]populisme): 1930년대 프랑스에서 일어난 문학 운동. 정치성과 경향성을 배제하고, 민중의 생활 감정을 묘사하여 민중이 즐겨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르모니에(Lemonnier, L.)가 제창하였다. 파퓰리즘(×)

[참고] 포퓰리즘(populism): 인기를 좇아 대중을 동원하여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치적 태도나 경향. →규범 표기는 미확정이다. 규범 표기가 확정되지 않았다.

ㅁ. 캐시밀론(Cashmilon): 아크릴로나이트릴을 주원료로 한 아크릴 계통의 합성 섬유 가운데 하나. 일본에서 생산된 상품명에서 나온 말이다. 카시밀론(×)

[오답 풀이]

ㄴ. 리조토→리소토(risotto): 버터에 쌀과 여러 가지 야채를 넣고 살짝 볶은 뒤 뜨거운 육수를 부어 만드는 이탈리아 요리. 이탈리아어 표기법에 따라 ‘리소토’로 표기한다. 리조토(×)

04 ④ 한문-한자 어휘

④ ㉔: 광활→광활(宏闊: 宏 클(넓다) 광/闊 넓을(멀다) 활): 몹시 크고 넓음.

① ㉑ 광분(狂奔: 狂 미칠 광/奔 달릴(빠르다) 분): ㉑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미친 듯이 날뛰. ㉒미친 듯이 뛰어 달아남.

② ㉒ 급급(汲汲: 汲 길음(물을 길다, 당기다, 힘쓰는 모양) 급/汲 길음(물을 길다, 당기다, 힘쓰는 모양) 급): 한 가지 일에만 정신을 쏟아 다른 일을 할 마음의 여유가 없음.

③ ㉓ 청징(淸澄: 淸 맑을 청/澄 맑을 징): 맑고 깨끗함.

④ ㉔: 광활→광활(宏闊: 宏 클(넓다) 광/闊 넓을(멀다) 활): 몹시 크고 넓음.

⑤ ㉕ 고매(高邁: 高 높을 고/邁 뛰어나다, 고상하다, 멀다)/邁 멀리 갈(지나다, 힘쓰다) 매): 인격이나 품성, 학식, 재질 따위가 높고 빼어나.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6월 6일 국회직 8급-가책형

2020. 06. 0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05 ① 고전문법-중세 국어의 특징

① 중세 국어에서 쓰이던 객체높임 선어말 어미 ‘-습-, -습-, -줍-’은 17세기 근대국어 시기에 사라졌다. 현대국어에서 객체높임은 ‘드리다, 여쭙다/여쭙다, 모시다, 뵈다/뵈다’ 등의 어휘로만 쓰인다.

현대 국어의 ‘하옵고’에 쓰인 ‘-옵-’은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말로 서술이나 의문에 공손함을 더해 주는 공손선어말 어미이다. 현대어에는 ‘-오-’, ‘-옵’ 등이 있다.

예) 제가 지금 가옵니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리 가옵시면 언제 다시 뵈겠습니까?

저를 불러 주시옵소서.

[오답 풀이]

② 주격조사 ‘가’는 17세기 근대국어 시기에 등장한다. 15세기의 주격조사는 다음과 같다.

ㄱ 자음 받침 + 이

ㄷ 모음 뒤 + ㅣ

ㄴ ‘이’나 ‘ㅣ’ 뒤+ 생략(∅)

‘너’는 모음 뒤이므로 ‘너+ㅣ=네’가 된다.

③ 중세 국어에서 의문형 종결 어미는 다음과 같다.

㉠주어가 2인칭 의문문: 의문형 종결어미 ‘-나다’, ‘-냐다’

예)

• 네 겨집 그러 가나다(네가 아내 그러워 갔느냐?) - 「월인석보」

• 네 어드리 하나(네가 어찌 해하겠느냐) - 「월인석보」

㉡판정의문문: 의문사 없이 보조사 ‘-가’ 또는 의문형 종결어미 ‘-나가, -ঞ가, -녀, -니여’ 등

예)

• 이 썩리 너희 종가(이 딸이 너희 종이나?) - 「월인석보」

• 安否는 便安하신가(안부는 편하신가?) - 「석보상절」

• 어더 보수 발가(얼어 볼 수 있을까?) - 「석보상절」

• 앓가본 썩디 잇느니여(아까운 뜻이 있느냐?) - 「석보상절」

㉢설명의문문: 의문사와 의문보조사 ‘-고’, 의문형 종결어미 ‘-나고, -ঞ고, -뇨’ 등

예)

• 얻논 藥이 므스것고(얻는 약이 무엇이나?) - 「월인석보」

• 어시아돌 離別이 엇던고(부모자식의 이별이 어떠한가?) - 「월인석보」

• 장초 어드러 갈고(차 어디로 갈 것인가?) - 「두시언해」 초간본

• 太子ㅣ 이제 어디 잇느뇨(태자가 지금 어디 있느냐) - 「석보상절」

④ 중세국어의 선어말어미 ‘오/우’

☞ 중세국어의 선어말어미 ‘오/우’

인칭법, 대상법에서는 종결형과 연결형에서 나타나는 ‘-오/우-’는 주어가 1인칭임을 표시하고 관형사형에서 나타나는 ‘-오/우-’는 피수식 명사가 대상어(목적어, 부사어)임을 보여준다. 선어말어미 ‘-오/우-’는 근대에 와서 그 기능을 상실하였다.

㉠ 용언의 주체가 1인칭일 때 ‘오/우(음성모음 뒤)’가 용언의 연결어미나 종결어미 앞에 붙게 된다. 또한 ‘.’ 뒤에 선어말 어미 ‘-오-’가 올 경우 ‘.’가 탈락한다.

예) 내 몬져 드도소이다(내가 먼저 들었습니다) -- 「석보상절」

→ 들+오+소이다

예) 내...스물여덟 字를 링³노니

→ 링골+느+오+니

예) 우리들히 毒藥을 그르 머구니(우리들이 독약을 잘못 먹으니)

→ 먹+우+니=머구니

예) 내 ... 五百 僧齋를 하다라(내가 ... 오백 승재를 하더라)

→ 하+오+다라=하다라

㉡ 대상법은 관형절에서 꾸밈을 받는 명사가 관형절의 의미상 목적어일 때 ‘오/우’가 붙는 규칙으로서, ‘오/우’가 관형형어미인 ‘ㄴ’과 ‘ঞ’ 앞에 붙게 된다.

예) 千世 우희 미리 定하산 漢水北에

→ 定하산=정하+샤(주체높임선어말어미)+오(대상표현(목적격활용)선어말어미 탈락)+ㄴ(관형사형 어미)

[참고] ‘-시-’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대상 표현 선어말 어미 ‘-오-’의 앞에서 ‘-샤-’로 변동하고 그 뒤의 /오/가 탈락.

⑤ 현대국어의 명사형 어미는 ‘-으(음), -기’가 쓰인다. 중세국어의 명사형 어미는 ‘-움(양성 모음 뒤)/-움(음성 모음 뒤)’이 쓰였다.

ㄱ 뭍에 = 뽕+움(명사형 어미)+에

ㄴ 지조롭디 몬흠은 음탕흠이오(재주롭지 못함은 음탕함이오)

→ 흠=ㅎ+움(명사형 어미)

06 ⑤ 현대문법-화용론: 중의적 표현

(ㄱ, ㄷ)은 한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어휘적 중의성, (ㄴ, ㄹ)은 문장의 구조적 특징에 의해서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구조적 중의성에 해당한다.

ㄱ. 길이 있다.

→ ‘길’의 의미가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어휘적 중의성이다.

ㄱ 길: 사람이나 동물이 다니는 공간

ㄴ 길: 수단이나 방법

ㄴ. 영수가 보고 싶은 친구들이 많다.

→ 서술어 ‘보고 싶어’는 주체가 모호하다.

ㄱ 영수가 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

ㄴ 영수를 보고 싶어 하는 친구들

ㄴ.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딸을 더 사랑한다.

→ 비교의 부사격 조사 ‘보다’가 쓰였는데 ‘보다’가 비교하는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중의문이 되었다.

ㄱ ‘어머니와 아버지’가 딸을 좋아하는 정도

ㄴ 어머니가 ‘아버지와 딸’을 좋아하는 정도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6월 6일 국회직 8급-가책형

2020. 06. 0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 ㄹ. 시내에서 가까운 곳에 우리 집이 있다.
→ '시내'의 의미가 둘 이상의 의미로 해석되는 어휘적 중의성이다.
ㄱ 시내(市內): 도시의 안
ㄴ 시내: 골짜기나 평지에서 흐르는 자그마한 내.

07 ③ 비문학-글의 논리적 순서

앞 부분에 제시된 문장을 보면 '도로교통에서 자명한 법칙이 의학에서는 추론의 단초가 되었다'는 설명이므로 이어지는 문장의 내용은 먼저 '도로교통에서 자명한 법칙'이 제시되었다 한다. 따라서 '휴가철 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일(정체 현상)'에 빗댄 (나)의 내용이 이어진다. 그리고 (나)에서 도로 정체로 빗댄 '뇌로 공급하는 포도당의 흐름이 정체'에 대한 원인 규명을 하려한 의학에 대한 설명인 (가)의 내용이 이어진다. (가)에서 원인을 '오랫동안 가망 없는 곳을 탐색'했다고 하면서 (라)의 '그러나 원인은 뇌에 있다'로 이어진다. 그리고 (다)의 '뇌에서 일어나 몸으로 확산된다'로 이어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08 ① 비문학-내용 파악(일치/불일치 유형)

앞 부분에서는 박지원의 마장전(馬駟傳)에 나오는 우정론을 소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글의 끝부분에서, '우정은~틈새 없는 인격의 결합이 아니라 인격 사이의 거리, 다시 말해 틈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전근대의 우정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지속되는' 것이라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② 메타포(metaphor)란 어떤 대상의 특성을 그것과는 다르거나 상관없는 말로 대체하여, 간접적이며 암시적으로 나타내는 은유적 표현을 뜻한다. 본문에서 우정의 관계를 '틈'으로 설명한 것은 은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으나, 해학에 근거하여 형성되었다는 내용은 적절하지 않다.
③ 전근대 시기의 '우정'은 틈으로 말미암아 아침이 생기고, 틈으로 말미암아 모함도 이간질된다.
④ 단초(端初)일이나 사건을 풀어 나갈 수 있는 첫머리를 뜻한다. 성안후(成安侯)와 상산왕(常山王)의 사귀는 근대가 아니라 전근대적 사귀의 단초라 할 수 있다.
⑤ 연암 박지원의 관점에서는 '틈이 없는 밀접한 관계의 우정'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오히려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갖게 되는 우정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다.,

09 ② 비문학-문단의 빈칸 넣기

㉠에서 '민주적인 말'이라는 것은 '민주주의 이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방송언어는 시청자 중심의 경어라야 한다는 것이다.

10 ④ 고전문학-고려속요: 어휘의 함축적 의미

위 시가에서 ㉠의 '빚', ㉡의 '부룻'과 12월령의 '저'는 화자의 분신이다.

[오답 풀이]

- ㉠의 '등(燈)불'과 3월령의 '돌윗곳'은 임의 분신이다.
㉠의 '곳고리 새'는 옛날의 나를 잊고 찾아오지 않는 '임'과 대조되어, 변함없이 찾아오는 자연물을 뜻한다.
㉡의 '손'은 임이 아닌 다른 사람을 뜻한다.

※출전: 작자 미상, 「동동(動動)」

1. 해제: 현전하는 가장 오래된 월령체(달거리) 노래이다. 이 노래는 총 13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연은 서사로 송도의 뜻을, 2~13연은 임에 대한 예찬과 그리움, 그리고 송축을 담고 있다. 그런데 각 달마다의 정서와 주제가 일관되지 않아 작품 전체의 주제나 정서를 말하기가 어렵다. 이 노래는 화자의 심리를 세시 풍속을 활용하여 드러내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2. 핵심 정리

1) 주제: 송축과 고독의 비애 또는 임에 대한 영원한 사랑

2) 특징

- 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월령체(달거리) 노래임.
② 일부는 세시 풍속을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함.
③ 영탄, 직유, 은유 등 다양한 표현 방법을 사용함.

3) 구성

- 서사(1연): 임에 대한 송축
- 1월령(2연): 자신의 외로운 처지
- 2월령(3연): 임의 인품 예찬
- 3월령(4연): 임의 아름다운 모습 예찬
- 4월령(5연): 자신을 찾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
- 5월령(6연): 임의 만수무강 기원
- 6월령(7연): 임에게 버림받은 처지
- 7월령(8연): 임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 8월령(9연): 임이 없는 한가위의 쓸쓸함
- 9월령(10연): 임이 없어 생긴 고독
- 10월령(11연): 임에게 버림받은 신세
- 11월령(12연): 독수공방의 외로움
- 12월령(13연): 임과 맺어지지 못한 인연

11 ⑤ 현대문법-단어의 형성

ㄱ의 '두근두근하다'는 '두근두근+하다(동사화 접사)'의 구성으로 된 파생어, '빛나다'는 '주어(빛이)+서술어(나다)'의 구성으로 된 통사적 합성어, '잘되다'는 '부사(잘)+서술어(되다)'의 구성으로 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참고] '못되다, 안되다'는 부사 뒤에 형용사화 접사 '되다'가 결합하여 파생된 형용사이다. 즉, 부사 뒤에 결합되는 '-되다'는 형용사화 접사이지만, '잘되다'의 경우 동사이므로 형용사를 만드는 접사 '-되다'가 결합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합성어로 파악한다.

[오답 풀이]

- ① ㄱ의 '봄꽃'은 '명사(봄)+꽃(명사)', '거짓말'은 '명사(거짓)+명사(말)'의 구성으로 된 통사적 합성어로서, 단어 형성 방법이 같다.
② ㄴ의 '감발'은 '감(동사의 어간)+발(명사)', '검붉다'는 '검(형용사의 어간)+붉다'의 구성으로 연결어미가 없는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그리고 '독서(讀書)'는 우리말의 어순인 '책을 읽다'가 아니라 중국어의 어순인 '서술어(읽다)+목적어(책)'의 구성이므로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참고] 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의 문장 구성법과 일치하게 형성된 합성어이고, 비통사적 합성어는 우리말의 문장 구성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형성된 합성어이다.

이에 따르면 '독서(讀書)'와 '등산(登山)'은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우리말의 어순에 따르면 '서독(책을 읽다)'와 '산등(산에 오르다)'로 합성어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실제로는 중국어의 어순에 따라서 '독서(읽다 책을)'와 '등산(오르다 산에)'으로 형성되었기 때문에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는 것이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6월 6일 국회직 8급-가책형

2020. 06. 0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③ ㄷ의 '진짜'는 '진(眞: 한자 어근)+짜(접미사)', '코두레'는 '코(명사)+똥(동사의 어간)+에(접미사)', '집게'는 '집(명사)+게(접미사)의 구성으로 된 파생어이다.

[참고] -짜: 일부 명사의 어근에 붙어, 그러한 성질을 가진 사물이나 사람의 뜻을 더하는 말.

예 진짜, 공짜, 괴짜, 알짜, 가짜

④ ㄹ의 '왕고집'은 '왕(접두사)+고집', '범민족'은 '범(접두사)+민족', '최고참'은 '최(접두사)+고참'의 구성으로 된 파생어이다.

[참고]

• 왕(王)-: '매우 심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왕고집, 왕가뭇.

• 범(汎)-: '그것을 모두 아우르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범민족, 범세계적, 범대평양.

• 최(最)-: '가장, 제일'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예 최고참, 최우수, 최전방, 최고위, 최첨단.

12 ② 비문학-내용 파악(일치/불일치 유형)

적에 의해 여러 겹으로 둘러싸인 군사들은 겹에 질려 있을 때 부드럽게 격려하고, 여러 장수들은 중과부적이라 스스로 낙심할 때 낙심하지 않고 적진으로 쫓아 들어가 적을 한 놈도 남지 않은 모습 등에서 '나(이순신)'의 부드러움과 강인함을 알 수 있다.

[오답 풀이]

① 적들은 130여 척의 배로 전쟁에 임하고 있을 뿐, 정당하지 않은 방법이라 할 수 없다.

③ 호각과 깃발뿐만 아니라, 직접명령(대화)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④ 여러 장수들은 중과부적이라 스스로 낙심하여 도망갈 꾀만 내고 있었다. 그리고 '나(이순신)'의 말에서, 안위와 김응함의 멀리 도망가고, 중군으로서 위기에 빠진 대장을 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⑤ 마지막 부분에 적선 세 척이 얹어지고, 적을 쏘아 죽여 적은 한 놈도 남지 않았다는 설명만 있을 뿐, 적선 130여 척을 모두 격침시킨 것인지는 알 수 없다.

13 ② 우리말 어휘-관용적 표현

'입이 되다'는 맛있는 음식만 먹으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 음식에 매우 까다롭다는 뜻이다. 따라서 문맥에 적절하지 않다.

예 별로 좋지 않은 가정 형편에 남편이 입이 되어 여자가 무척 고생이 심한 모양이야.

[오답 풀이]

① 입에 붙다: 아주 익숙하여 버릇이 되다.

③ 입이 발다[짹다]: 음식을 심하게 가리거나 적게 먹다.

④ 입이 여물다[야무지다]: 말이 분명하고 실속이 있다.

⑤ 입(입맛, 입안)이 쓰다: 어떤 일이나 말 따위가 못마땅하여 기분이 언짢다.

14 ④ 어문규정-띄어쓰기

④ 쫓아내버렸다 → 쫓아내 버렸다.

'쫓아내다'는 '쫓+아(연결어미)+내다'의 구성으로 된 합성어이다. 본용언이 복합어인 경우는 보조 용언을 앞말에 붙여 쓰지 않는다.

[오답 풀이]

①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다만, '본용언+-아/-어+보조 용언', '관형사형+보조 용언(의존 명사+하다/싶다)' 구성의 경우 보조용언을 붙여 쓸 수 있다.

ㄱ 그 일은 할 만하다(원칙)

ㄴ 그 일은 할만하다(허용)

②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는 띄어 쓴다. 다만, 숫자와 어울리어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ㄱ 2 시간(원칙)

ㄴ 2시간(허용)

③ 조사는 둘 이상 연속될 때에도 그 앞말에 붙여 쓴다.

나+에게(부사격조사)+만(보조사)+이라도(보조사)

⑤ '관련짓다'는 합성어이므로 한 단어로 붙여 쓴다.

'관련, 규정, 결정, 종결' 등 뒤에는 '-하다'와 '짓다'를 모두 붙여 쓴다.

ㄱ 관련하다, 규정하다, 결정하다, 종결하다

ㄴ 관련짓다, 규정짓다, 결정짓다, 종결짓다

[주의] '눈물짓다' 붙여 쓰고, '웃음' 뒤에 오는 '짓다'는 '웃음 짓다'로 띄어 쓴다.

15 ④ 현대문법-화용론: 중복된 표현

④의 문장은 의미가 중복된 부분이 없다.

[오답 풀이]

① 역전 앞에서→역전에서, 역 앞에서

'역전 앞'은 '전(前)'과 '앞'이 중복된 표현이다.

② 다시 재론할 → 재론할, 다시 의논할

'재론(再論)'은 '다시 의논하거나 거론함'이란 뜻이므로 부사 '다시'의 의미가 중복된 표현이다.

③ 여러 가지 제반 문제들이→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반 문제들이
'제반(諸般)'은 '어떤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을 뜻하므로 '여러 가지'와 의미가 중복된 표현이다.

⑤ 왜 일어나는가의 원인을 → 왜 일어나는나, 원인을

'원인(原因)'은 어떤 상태를 변화시키거나 일으키게 하는 근본이 된 일이나 사건을 뜻한다. 따라서 '왜 일어나는가'와 중복된 표현이다.

16 ① 어문규정-표준어 규정

한자어 계열(비표준어)		고유어 계열(표준어)
분전/푼전	→	푼돈
식소라	→	밥소라 (큰 낚스)
사래전	→	사래발 (묘지거나 마름이 수고의 대가로 부쳐 먹는 발.)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6월 6일 국회직 8급-가책형

2020. 06. 0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오답 풀이]

	한자어 계열(비표준어)		고유어 계열(표준어)
②	벽지다	→	외지다
	동파	→	움파
	백말/부루말	→	흰말, 백마
③	배달나무	→	박달나무
	화곽	→	성냥
	두껍창	→	두껍달이
④	목발	→	지갯다리(지게 동발의 양쪽 다리)
	숫을문	→	숫을무늬
	방돌	→	구들장
⑤	앞초	→	앞담배
	말약	→	가루약
	반찰떡	→	매찰떡

17 ⑤ 한문-한자 어휘

⑤

- ㉠ 대방부(大丈夫: 大 큰 대/丈 어른(남자) 장/夫 지아비(사내) 부): 건장하고 씩씩한 사내.
- ㉡ 동정서벌(東征西伐: 東 동녘 동/征 칠 정/西 서녘 서/伐 칠 벌): 동쪽을 정복하고 서쪽을 친다는 뜻으로, 이리저리로 여러 나라를 정벌함을 이르는 말.
- ㉢ 심장(心臟: 心 마음 심/臟 오장(내장) 장): 혈액을 몸 전체로 보내는, 순환 계통의 중심적인 근육 기관.
- ㉤ 통탄(痛歎: 痛 아플 통/歎 탄식할 탄): 몹시 탄식함.

[오답 풀이]

- 장(將: 장수(인솔자, 장차) 장)
- 벌(罰: 벌할(죄) 벌)
- 심장(深藏: 深 깊을 심, 藏 감출 장): 물건 따위를 깊이 감추어 둠
- 통(通: 통할(알리다) 통)

18 ③ 고전문학-한시

③ ㉢의 뜻풀이는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 : ㄱ롬쑤 → 강(江)쑤
- ② ㉡ : 기펏도다 → 깊었도다, 무성하였도다
- ④ ㉣ : 스도다 → 비싸도다, 값어치에 해당하다, 값이 나간다.
원래 '스다'는 '값어치에 해당하다. 값이 나간다'의 뜻을 가졌었는데, 명사 '빔'과 합성어가 되어 '빔스다'는 '비싸다'로 하나의 단어로서 원래의 뜻을 그대로 유지한 반면, 현대에 '싸다'는 그 반대로 '비용이 낮다'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 ⑤ ㉤ : 빈혀쑤 → 비녀를

※출전: 두보, 「춘망(春望)」

1. 해제: 안녹산의 난으로 함락된 장안에서 보고 느낀 전란의 처참한 현실과 비애,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선경 후정의 방식으로 노래한 시이다. 변함없는 자연의 모습과 전쟁으로 폐허가 된 성 안의 모습을 대비하여 무상감을 자아내고 있으며, 소식조차 듣기 어려운 가족에 대한 그리움, 자신의 늙음을 한탄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2. 핵심 정리

1) 특징

- ① 5언 율시
- ② 선경 후정의 구성 방식을 취함.
- ③ 당대의 사회 현실이 나타남.

2) 구성

- 수련(1~2행): 전란으로 인해 폐허가 된 모습
- 함련(3~4행): 전란으로 인한 상심
- 경련(5~6행): 가족에 대한 그리움
- 미련(7~8행): 쇠약해진 육신과 늙음에 대한 한탄

3) 주제: 전란의 비애와 상심

3. 현대어 풀이

나라가 망하니 산과 강물만 있고

성 안의 봄에는 풀과 나무만 깊어 있구나.

시절을 슬프게 여기니 꽃이 눈물을 흘리게 하고

(처자와) 이별하였음을 슬퍼하니 새가 마음을 놀라게 하네.

전쟁이 석 달을 이었으니,

집의 소식은 (황금을 주어도 편지를 받아 보지 못할 만큼) 만금보다 값지도다.

흰 머리를 굵으니 또 짧아져서

(머리카락이 너무 빠져) 다 모아도 비녀를 이기지 못할 것 같구나.

19 ② 어문규정-한글맞춤법

② 받쳐→받혀

‘받다’의 피동사로서, ‘머리나 뿔 따위에 세차게 부딪히다’는 뜻의 동사는 ‘받히다’이다.

[오답 풀이]

- ① 바치다: 신이나 웃어른에게 정중하게 드리다.
- ③ 받치다: 먹은 것이 잘 소화되지 않고 위로 치밀다.
- ④ 바치다: 무엇을 지나칠 정도로 바라거나 요구하다.
- ⑤ 받히다: ‘받다’의 사동사.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품을 사게 하다.

20 ③ 비문학-단락의 빈칸 넣기.

제시 글의 마지막 문장을 보면, 글의 필자는 ‘인공 지능에 대한 더딘 도입의 근본적인 원인’이 ‘인공 지능에 대한 불충분한 이해’라는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에는 ③이 가장 적절하다.

21 ⑤ 비문학-글의 서론 쓰기

- 사건이나 현상: 사이버 공간이 새로운 자유 공간으로 환영받고 있다.
- 문제점 이끌어 내기: 사이버 공간에서 무제한의 자유로 인해 여러 비윤리적 행동이 나타나고 있다.
- 논제(논의 주제) 제시: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유를 적절히 제한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6월 6일 국회직 8급-가책형

2020. 06. 0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오답 풀이]

- ① 사건이나 현상, 논제가 제시되지 않았다.
- 문제점: 사이버 공간에서의 비윤리적 행동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 등이 그것이다.
- ② 사건이나 현상이 제시되지 않았다.
- 화제: 사이버 윤리 규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 문제점: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으로 인해 비윤리적 행동들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 논제의 내용: 사이버 윤리 규범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 하는가?
- ③ 논제를 제시하기 위한 문제점이 제시되지 않았다.
- 현상 제시: 사이버 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논제 제시: 사이버 공간에 대한 관심을 바람직한 현상으로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 ④ 사건이 현상이 제시되지 않았다.
- 문제점: 최근 인터넷 사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왜냐하면 사이버 공간은 현실 세계와 달리 행동이 자유롭고 규제가 적기 때문이다.
 - 논제: 사이버 공간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상황의 개선이 필요하다.

22 ④ 비문학-내용 파악(일치/불일치 유형)

3문단에서 '고통과 즐거움에 대한 느낌은 ~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의 촉매제가 되었다'는 설명이 제시되었다. 따라서 ④의 내용은 적절하다.

[오답 풀이]

- ① 1문단에서, '느낌은 어떤 언어의 도움도 없이~마음에 알려준다'고 했으므로 바르지 않은 설명이다.
- ② 2문단의 첫째 문장에 '이성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느낌이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제시되어 있다. 즉 이성이 작동하지 않아도 느낌은 성공할 수 있다.
- ③ 느낌은 뇌의 독자적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현상이다.
- 2문단에서, '느낌은 뇌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화학 분자와 신경 회로의 상호작용으로 뇌와 신체가 같이 만들어 내는 현상이다'라고 하였으므로 바르지 않은 설명이다.
- ⑤ 3문단에서 '그것(느낌은~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은 다른 동물의 마음과 구별되는 인간만이 가진 마음의 특성이라고 하였으므로 바르지 않은 설명이다.

23 ① 현대문학-현대시: 시어의 함축적 의미

'하루살이의 광무'는 하루살이의 비행을 표현한 것으로, 하루밖에 살지 못하는 하루살이의 비행은 모든 것을 바쳐 열정적으로 추는 춤과 같은 것이라는 인식이 담긴 표현이다. 하루밖에 못 사는 존재인 하루살이가 열정적으로 춤을 추고 있다는 의미에서 하루살이의 열정에 대한 시적 화자의 동경이 표현된 것이며, 곧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하루살이와 무의미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화자의 삶을 대비하여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한다.

[오답 풀이]

- ② ㉠ '나의 머리 위의 천장'은 화자가 추구하는 공간이 아니라 화자와 대비된 하루살이가 날고 있는 공간이다.
- ③ ㉡에서 '반복(反覆)'은 '같은 일을 되풀이함'을 뜻하는 의미의 반복(反復)이 아니라, '언행이나 일 따위를 자꾸 고친다'는 의미로, 일상적 삶을 뒤집는 행위이다. 따라서 '하루살이의 반복'은 하루살이의 자유로운 비행을 의미한다.

- ④ ㉢에서 '벽을 사랑하는 하루살이'는 경직된 기존의 모든 것에 도전하는 하루살이의 모습이다. 따라서 '벽'은 '비애와 애환의 공간'이 아니라 도전을 의미하는 소재이다.
- ⑤ ㉣의 '황홀'은 볼 옆으로 모여드는 하루살이의 열정을 의미한다.

※출전: 김수영, 「하루살이」

1. 해제: 이 시는 시적 화자가 하루살이를 관찰하며, 그 모습을 자신의 삶과 연관 지어 표현한 작품이다. 일을 하고 있는 화자의 곁으로 하루살이가 나타나 방해한다. 처음에는 하루살이의 행동을 자신의 일상을 방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하루살이의 자유로운 비행을 유심히 지켜보며, 자신의 무기력한 삶을 반성하기에 이른다. 일상에 빠져 본연의 정신과 할 일을 잊어버린 시인이 자신의 일을 방해하는 하루살이를 보면서, 하루살이의 방해로 시인 본연의 정신을 되찾으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2. 핵심 정리
- 1) 성격: 반성적, 대비적, 관념적, 예찬적, 주지적, 관념적
 - 2) 화자: 무기력하고 삶의 열정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
 - 3) 특징
 - 열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하루살이와 무의미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화자의 삶을 대비한 작품으로, 영탄적 표현의 반복을 통해 하루살이의 열정에 대한 동경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하루살이의 모습과 자신(나)의 태도를 대비하여 주제를 제시함.
 - 4) 제재: 하루살이의 비행
 - 5) 주제: 열정적 삶을 사는 하루살이에 대한 예찬과 동경
 - 6) 시상의 흐름(짜임)
 - 1연: 하루살이의 비행(광무)
 - 2연: 나의 일을 방해하는 하루살이의 유희
 - 3연: 끊임없이 비행이 이어지는 하루살이의 반복
 - 4연: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하루살이의 황홀

24 ③ 현대문법-의미론: 언어의 의미변화

- '온'은 본래 '백(百)'을 뜻하였으나, '전부의, 모두의'의 의미로 확장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메'는 원래 '밥'이나 '진지'를 가리키는 말인데, 현대에는 '제사에 올리는 진지'만을 나타내므로 의미의 축소(특수화)라고 할 수 있다.
- '인정(人情)'은 과거 관리에게 몰래 보내는 선물 곧 뇌물을 뜻하는 말이었으나, 현재에는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심정', 또는 '남을 동정하는 따뜻한 마음'의 의미 사용되고 있으므로 의미 이동이다.

- | | | |
|---------------|---------------|--------------|
| ① 마누라: 의미축소, | 눔: 의미축소, | 식구: 의미확대 |
| ② 놀부: 의미확대, | 짐승: 의미축소, | 언니: 의미확대 |
| ③ 온: 의미확대, | 메: 의미축소, | 인정(人情): 의미이동 |
| ④ 어리다: 의미이동, | 외도(外道): 의미동, | 손: 의미확대 |
| ⑤ 무릉도원: 의미확대, | 방송(放送): 의미이동, | 말씀: 의미축소 |

[오답 풀이]

- ①
- 마누라: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남녀 모두에게 사용될 수 있었으며, 그 용법은 일반적으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의 직함 뒤에 붙여 사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8세기에는 남자 쪽을 가리키지 않고, 여자 쪽만 가리키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남녀 불문 윗사람에게 쓰던 말을 자기 아내에게 쓰게 되었으므로 의미 축소로 볼 수 있다.

송운학 교수의 뿌리뽑기 국어
2020년 6월 6일 국회직 8급-가책형

2020. 06. 06. (토)

담당 교수 : 송 운 학



- 농: ‘사람’을 뜻하였는데, 현대 국어의 ‘농’은 남자를 낮잡는 의미로 쓰이므로, 의미가 축소된 경우이다.
- 식구(食口): ‘입’의 뜻에서 ‘가족’의 뜻으로, 의미가 확대된 것이다.
- ②
- 놀부: ‘놀부’라는 구체적 인물이 욕심과 심술이 많은 사람을 비유하여 지칭하게 된 것이므로 의미 확대이다.
- 짐승: 15세기의 표기는 ‘중칭’인데, 이 말은 한자어인 ‘중생(衆生)’을 그대로 표기한 것이다. 생물 전체(사람과 동물)를 의미하였으나, 지금은 사람을 제외한 ‘포유류’의 개념으로 의미가 축소된 것이다.
- 언니: 친족어에서 일반적 여성에도 사용하므로 의미 확대이다.
- ④
- 어리다: 중세에는 ‘어리석다’는 뜻이었는데 현대에는 ‘나이가 어리다’는 뜻으로 의미가 이동한 것이다.
- 외도(外道): 불교 이외의 다른 종교나 도(道)의 의미에서 ‘바람을 피우다’, 또는 ‘올바른 길을 가지 않다’는 뜻으로 의미가 이동하였다.
- 손: 신체의 일부인 ‘손’이 ‘일을 하는 사람, 노력이나 기술,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수완이나 께’ 등의 의미로 확장되었다.
- ⑤
- 무릉도원(武陵桃源): 본래 ‘무릉(武陵)’은 중국 호남성에 실재하는 곳이고 ‘도원(桃源)’은 복사꽃 피어난 정원을 말하지만, 이제는 그 의미가 확대되어 세파에 시달리는 인간이 꿈꾸는 완전한 이상향이나 별천지, 유토피아를 가리키는 말이 됐다.
- 방송(放送): 중세국어에 ‘죄인을 풀어주다’라는 의미였지만 현대국어에 와서 ‘전파를 내보내다’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이동하였다.
- 말쑥: 말 전체의 의미에서 말의 높임말 또는 낮춤말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25 ③ 비문학-내용 파악(일치/불일치 유형)

첫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에, ‘정치적·물질적 불평등은~나선형 상호 작용 효과라고 일컫는 것 안에서 나란히 진화했다’는 설명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오답 풀이]

- ① 첫째 단락의 첫 문장을 보면, ‘소득과 부에 대한 불균등한 접근 기회는 국가의 형성보다 앞서 존재했고~통치 체제가 일단 구축되고 나자 결과적으로 기존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고 나아가 새로운 불평등도 생성되기에 이르렀다’는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소득과 부에 대한 불균등은 국가가 성립한 후 없어진 것이 아니라 더욱 심화된 것이다.
- ② 첫째 단락에서, ‘전근대 국가들은 상업 활동에 대한 보호 조치를 마련함으로써~개인적 이득이 생겨날 새로운 출처를 가능케 함으로써 소수의 손안에 물질 자원이 축적 및 집중될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창출했다’는 설명이 있다. 따라서 특정 개인이 부를 쌓기 어렵게 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개인적 이득, 소수가 부를 축적하게 된 것이다.
- ④ 둘째 단락에서, ‘국가란 영토와~제도와~조직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즉 ‘영토보다 조직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영토와 조직이 모두 국가의 구성요소이다.
- ⑤ 둘째 단락에서, ‘최초의 국가 출현을 설명하는 이론은~경제 발전과 그것의 사회적·인구학적 결과에 입각해 있다.~지도자들에게 인구 밀도 증가~유발되는 문제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 등을 설명하고 있다. 즉 ‘인구 밀도 증가에서 유발되는 문제를 처리할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에 관한 것이지, 이것이 인구수에 대한 강압적 통제를 의미하지 않으며, 또한 최초의 국가의 출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설명도 바르지 않다.